동학농민혁명 연구 창간호|185-212| https://doi.org/10.69636/JDPR.2023.1.6

특집논문

『홍재일기(鴻齋日記)』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기 부안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성격*

정 을 경(충남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목차

1. 머리말
2. 2차 봉기 과정에서 동학농민군의 활동
3. 맺음말

1. 머리말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기록은 정부측이 작성한 자료, 개인이 작성한 자료, 일본의 외무성자료 및 신문자료, 청 정부의 자료, 교단이 작성한 자료와 경전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 기록 중 개인이 작성한 자료는 동학농민혁명에 직접 참여한 인물이 기록한 자료(오지영의『東學史』, 조석헌의『北接日記』등), 동학농민혁명을 직접 목격하여 작성한 자료(황현의『梧下記聞』, 김윤식의『沔陽行遣日記』등) 등으로 나뉜다. 이러한 개인 기록은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자료들과 비교 검토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인 기록은 관(官)의 입장이 아닌 민(民)의 입장으로 당시의 상황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는 점, 기록한 개인의 부류가 당시의 상황과 사건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었는지 확인 가능하다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이다.

이러한 점에서『홍재일기』는 전라남도 부안군 남하면(현재 주산면) 홍해마을에 살던 기행현(奇幸鉉, 1843~)이 1866년을 시작으로 1911년까지 쓴 일기로 사료적인 가치가 크다. 이 일기에는 개인적인 일상 뿐 아니라 당시 보고 들은 내용, 민정(民政), 각종 부세(賦稅), 쌀을 포함한 물가 등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홍재일기』를 단순히 개인의 일기라고 치부하기에는 19세기 후반 부안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상황을 통해 당시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귀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홍재일기』는 부안 백산대회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

---

* 이 논문은 2023년 부안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의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서 연구자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다.[1] 또한 동학농민혁명을 전후한 시기 부안과 인근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뿐 아니라 1894년 3월에서 1895년 5월까지 부안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양상과 행적을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되었다. 『홍재일기』를 쓴 기행현이라는 인물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지 않은 지방의 유생이었다. 따라서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되지 않고 목격하고 들은 내용이 기록되었다는 점과 지방 유생들이 갖고 있던 동학농민혁명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료적인 가치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홍재일기』는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주목되었다.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홍재일기』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19세기 후반 전라도 부안군의 경제사정,[2] 훈집(訓執)의 역할,[3] 비결(祕訣)의 유행,[4] 부안현 호구 및 결가 조사 양상[5] 등 당시 부안군의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고찰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한 연구는 『홍재일기』 분석을 통한 동학농민혁명의 실상,[6] 1894년 이후 호남의 동학여당과 의병의 동향[7] 등 2편

---

1 김철배, 「『홍재일기』로 본 19세기말 부안의 사회상과 동학농민혁명」, 『부안의 동학사상과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혁명백산봉기기념사업회, 2016, 60~62쪽.

2 김철배, 「전라도 부안 사족 기행현의 『홍재일기』와 19세기 후반기 부안의 경제사정」, 『전북사학』 46, 2015.

3 김영준, 「19세기 후반 전라도 부안군 훈집의 역할-『홍재일기』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77,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5.

4 이선아, 「19세기 부안 유생 기행현의 『홍재일기』와 祕訣의 유행」, 『동학학보』 65, 동학학회, 2023.

5 김영준, 「19세기 후반 전라도 부안현 호구 및 결가 조사의 실제적 양상-남하면 훈집 김기현의 『홍재일기』를 중심으로-」, 『전북사학』 53, 전북사학회, 2018.

6 이선아, 「19세기 부안 유생 기행현의 『홍재일기』와 동학농민혁명의 실상」, 『동학학보』 50, 동학학회, 2019.

이 확인된다.

기존의 연구는 1894년 3월부터 12월까지를 한정하여 백산대회, 황토현전투, 전주성 함락 등 큰 사건에 대한 농민군의 활동을 고찰하거나, 1894년 이후 10년 동안 동학여당의 활동상을 통해 의병과의 연관성을 고찰하였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1894년부터 1895년까지의 부안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양상을 1차 봉기와 2차 봉기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그려내지 못했다. 이러한 점은『홍재일기』라는 새로운 기록을 통해 기존의 부안 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가와 부안 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을 파악하기에 중요한 점이다.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 성과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2차 봉기 과정에서 부안을 비롯한 인근 동학농민군의 활동 양상을 파악하도록 하겠다.

2. 2차 봉기 과정에서 동학농민군의 활동

1) 동학에 대한 인식

이 시기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인식은 어떠했을까.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해 주는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전라도 유교 지식인의 동학과 동학농민군에 대한 인식은 박맹수의 연구[8]에 의해 밝혀졌다.

---

7 이선아,「1894년 이후 호남의 동학여당과 의병의 동향-부안 유생 기행현의『홍재일기』를 중심으로-」,『동학학보』65, 2023.

8 박맹수,「전라도 유교 지식인의 동학농민군 인식과 대응」,『한국근현대사연구』제51집, 2009.

1860년 경상도 경주에서 성립된 동학은 3단계에 걸쳐 전라도 지역에 포교되었다. 1단계는 수운 최제우에 의한 직접포교, 2단계는 2대 교주 최시형에 의한 순회포교, 3단계는 해월의 지도를 받고 성장한 전라도 출신 지도자들에 의한 포교였다. 전라도 유생들의 초기 동학에 대한 인식은 경상도 유교 지식인들의 인식과 동일하였으며, '양민을 속이는' 학문으로 간주한 중앙 조정의 입장과도 동일한 견해였다. 전라도 유생들은 동학을 직접 인식하지 못하고 풍문(風聞)으로 인식하였고, 동학을 서학의 변종이나 혹세무민의 학문으로 인식하였다.[9]

교단에서는 1864년 최제우가 '좌도난정(左道亂正)'의 죄목으로 처형된 직후부터 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신원운동인 교조신원운동이 본격화되는 1892년까지의 시기를 '은도시대(隱道時代)'라고 부른다. 이 은도시대에 해월의 지하포교 활동으로 충청도와 전라도는 동학의 교세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1890년대 초반 전라도에서도 동학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의 탄압은 지방관이 아닌 고을의 유력 양반이나 부호들까지 탄압에 가세하였으며, 종래의 탄압이 사도인 동학에 대한 금단이었다면 이 시기에는 동학 금단을 빙자한 지방관 및 호민들의 전재토색 행위의 일환이었다.[10]

은도시대를 지나 1892년부터 1893년에 전개된 교조신원운동을 통해 동학교인들이 자신들의 소리를 표출하기 시작하였고, 교세도 더욱 성장하였다. 전라도 유교 지식인들은 이러한 동학의 만연에 위기감을 느꼈고

9 박맹수, 「전라도 유교 지식인의 동학농민군 인식과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제51집, 2009, 114~116쪽 참조.

10 박맹수, 위 책, 120~121쪽 참조.

동학을 적극적으로 배척하기 시작하였다. 그 방안의 하나로 향약 실시를 통한 향촌사회 통제를 강화하려 하였다.[11] 그리고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1차 봉기 시기에 농민군이 감영군과 경군을 잇따라 격파하고 조선왕조의 발상지이자 호남의 수부인 전주성마저 점령하면서, 유교 지식인들의 위기의식은 최고조에 달했다. 당시 유교지식인들은 동학을 사교이면서 혹세무민의 종교로 폄하하고 있었으며, 백련교도나 장각의 무리처럼 변란을 일삼는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바라만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유생들이 직접 농민군들과 맞서 싸우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모든 유생들이 동학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거나, 직접 농민군들과 맞서 싸울 정도로 적극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당시 유생들의 동학에 대한 인식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던 기행현과 비슷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행현과 비슷한 전라도 출신 유생이었던 장성의 변만기(邊萬基, 1858~1925)가 동학농민혁명기에 남겨 놓은 일기인 『봉남일기(鳳南日記)』와 남원 유생 김재홍(金在洪)이 남긴 『영상일기(嶺上日記)』를 살펴보자. 『봉남일기』에는 장성 인근의 동학농민군의 활동상뿐 아니라 나주 전투, 전봉준의 움직임 등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그는 이 일기의 많은 곳에서 동학농민군들의 횡포와 폐단을 상세하게 기록해 두었다. '각 면(面)이나 리(里)마다 소위 량미(粮米)와 군수전(軍需錢)이란 것을 임의대로 내놓으라고 명령하고, 혹은 사사로운 혐의[私嫌]로 침략하는 폐단으로 인해 사람들의 원성이 들끓었다.'[12]라는 기록이나, 도인들이 마을로 들어

11 박맹수, 위 책, 124쪽.

12 『봉남일기(鳳南日記)』 갑오년 10월 28일.

와 노략질하거나 밥상을 바친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등 동학농민군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또한『영상일기』는 동학농민혁명기 자신이 겪은 경험과 전해 들은 일을 날짜별로 기록하였다. 이 기록에서 그는 동학농민군에 대해 사도(邪徒)로 규정하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그는 김개남 등 동학의 접주를 '괴수'라고 명명하였으며, 농민군을 '적'이라고 기록하였다. 또한 '거주하는 백성들은 협박하여 자신의 무리를 따르게 하였는데, 만약 따르지 않은 자는 속전(贖錢)을 받거나 형벌과 욕을 심하게 받았다. 협박으로 따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날로 많아졌다.'[13]라고 기록하는 등 노골적으로 동학농민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표출하였다.

기행현의 동학에 대한 인식을 일기를 통해 살펴볼 때, 그도 역시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기록에서 기행현은 '동학인들이 당당하게 횡행하면서 나쁜 짓을 하고 폐해를 끼친다'고 말할 정도로 동학인들의 민인들에 대한 횡포에 대해 적나라하게 기록하였다. 또한 동학인들이 거리낌 없이 살인을 하여 민인들이 기세를 두려워한다고 하였으며, 동학인들이 주민들을 적간하여 성책한다는 점도 기록하였다.

> 1894년 6월 17일 곳곳의 동학인들이 당당하게 횡행하면서 나쁜 짓을 하고 폐해를 끼치며 거리낌 없이 살인을 하니 대소 민인들이 그 기세에 두려워하였다.[14]

13『영상일기(嶺上日記)』갑오년 10월 14일.

14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국역 홍재일기』상, 735쪽.

1894년 9월 2일 동학 사람들이 마을마다 속인(俗人)들을 적간하여 성책하였다고 한다.[15]

기행현은 9월부터 부안 지역 인근에서 동학농민군의 소란이 매우 심하다는 것과 집안 어른이 지금 세상에 동학을 배척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은 것을 기록하였다. 전국적으로 커지는 동학 교세에 대해 인식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1894년 9월 8일 동학인들 8만여 명이 남원에서 모여서 소란을 일으키는 것이 매우 심하다고 한다. 종제와 함께 유천의 어르신 고제상 씨 집에 가서 잤다. 지금의 세상에 동학을 배척할 수 없다고 한다.[16]

특히 1894년 9월 11일에는 장성에 살고 있는 기양연의 서자가 총에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났다. 기양연은 같은 집안사람인 것으로 보이며, 총을 쏜 사람이 동학과 관련된 인물이었다는 점으로 볼 때 이러한 일들이 기행현이 동학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1894년 9월 11일
친구 김성숙(金聖淑)의 집에 가서 점심을 먹었다. 그 재실(齋室)에 가니 정덕언(鄭德彦)의 포(包)에서 경통(敬通)이 도착하였다. 접중(接中)이 죽고 사는 고비인데 그중 2명의 시신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모두

15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국역 홍재일기』 상, 744쪽.
16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국역 홍재일기』 상, 745쪽.

사창시(社倉市)에 모였다고 한다. 소문에 듣자니, 장성의 기양연(奇亮衍)의 서자(庶子)가 총을 맞아 죽었다. 최경선(崔敬善)이 총을 쏘아 죽였는데 임실의 대접주라고 한다.[17]

2) 동학농민군의 활동 양상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경복궁 점령과 청일전쟁의 승리로 인해 일본이 조선에 대한 노골적인 야욕을 드러내면서 재기하게 되었다. 특히 9월 18일 최시형이 내린 총기포령에 따라 남접과 북접의 동학농민군이 연합하여 활동한 시기로 중요하다. 『홍재일기』에서도 이 시기(9월 15일) 동학농민군이 기포(起炮)를 결정하는 기록이 확인된다. 이때 부안읍의 도소는 읍내의 작청(作廳)에 설치하였다. 또한 같은 날 기행현은 한양에서 내려온 백치현(白致賢)의 아들에게 각 읍의 기군(起軍) 소식을 물었고, 북접의 최시형이 '운명이로다.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했다는 대답을 전해 들었다.[18]

듣자니 각 읍의 접주들이 모두 군대를 일으켜 기포(起炮)하였으며, 본읍의 도소를 다시 읍내 작청(作廳)에 설치하였다. 사통이 도착하였는데 각 접주들이 오늘 날이 저물기 전에 기포하고 창검을 들고 서둘러 와서 모이라고 하였다. 친구 백계중의 집에 가서 술을 마셨다. 친구 백치현(白致賢)의 집에 가서 그 아들을 만났더니 한양으로부터 오는 길이어서 각 읍에서 일으킨 군사 소식을 물었더니 법헌(法軒: 최시형)'운명이로다 어떻게 하겠는가'

17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국역 홍재일기』 상, 746쪽.

18 이선아, 「19세기 부안 유생 기행현의 『홍재일기』와 동학농민혁명의 실상」, 『동학학보』 50, 동학학회, 2019, 105쪽.

라고 하였다고 한다.[19]

또한 기행현이 본 북접(北接) 법헌소(法軒所) 경통(敬通)에는 '일제히 분발하여 함께 대의(大義)로 나아가 부족한 힘을 다해 임금의 지척에서 그 원통함을 호소하여 선생의 묵은 억울함을 시원스레 풀고 종묘와 사직이 위급할 때 달려가서 모두 대의를 좇아 보답하자'라고 적혀 있었다.[20] 이처럼 최시형 등 북접도 이 시기는 동학농민군의 봉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기행현이 살던 부안 지역의 동학농민군은 1차 봉기 때는 거리를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나, 총기포령에 따른 2차 봉기에는 동참하였다. 이와 관련한 부안 동학농민군의 봉기 원인과 관련 주동 인물들은 전봉준 판결문에 기록되어 있다.

> 일본 군대가 대궐에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반드시 일본인이 우리나라를 삼키려는 뜻이 있는 줄을 알고, 일본군을 쳐서 물리치고 그 거류민을 나라 밖으로 몰아낼 마음으로 다시 군사를 일으킬 것을 모의하였다. 전주 근처의 參禮驛이 땅이 넓고 전라도의 요충지이기에 그해 9월쯤에 태인을 출발하여 원평을 지나 삼례역에 이르러 그곳을 기병하는 大都所로 삼았다. 그리고 鎭安에 사는 동학 접주 文季八, 全永東, 李宗泰, 금구에 사는 접주 趙駿九, 전주에 사는 접주 崔大奉, 宋日斗, 정읍에 사는 孫汝玉, 부안에 사는 金錫允, 金汝中, 崔卿宣, 宋熹玉 등과 모의하여[21]

19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국역 홍재일기』 상, 746쪽.
20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국역 홍재일기』 상, 748쪽.
21 「제37호 판결선고서원본 전봉준」

이들의 봉기 원인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키려는 뜻이 있다고 파악하였고, 이러한 일본군을 물리치기 위해 거병했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의 침략을 제대로 인식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전라도 일대의 동학 접주들이 동참하였는데, 그중 부안에서는 김석윤, 김여중, 최경선, 송희옥 등이 참여했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김석윤은 김영조이며, 김여중은 김낙철이다.[22]

기존 부안 지역의 동학농민혁명군의 활동에 대해서는 2차 봉기 과정에 대해서는 소략했다. 1894년 9월 중순 최시형이 기포를 명하였을 때, 김낙철과 김낙봉, 신명언, 김영조(김석윤)이 기포했다는 점, 양력 10월~12월 전봉준과 손화중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에 합세하여 공주 우금치전투 등에 참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밝혀졌다.[23]

그러나 총기포령 이후 부안과 인근 지역 동학농민군들의 움직임은『홍재일기』에서 다양하게 확인된다. 김개남을 포함한 동학농민군이 남원에서 모여 재봉기를 결의한 이후, 기행현은 다음 날인 9월 16일 전봉준이 군대 1만 명을 일으켜 삼례에 가서 진을 쳤다고 기록하였다. 최경선 또한 군대 1만 명을 일으켰고, 정일서(鄭一西) 역시 군대 1만 명을 일으켰으며, 손여옥(孫汝玉)도 정읍에서 군대를 일으켰다고 전해 들었다.[24]

최경선은 1859년 11월 18일 태인현 서촌면 월촌리 출신으로 1894년 1월 고부관아를 습격하였으며, 3월 제1차 봉기에서는 백산에서 동학농민

22 조성운,「부안 지역의 동학농민운동과 백산대회」,『역사와 실학』61, 역사실학회, 2016, 330쪽.

23 조규태,「김낙철 형제의 동학과 부안도소 활동」,『동학학보』64호, 2022, 27~28쪽.

24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국역 홍재일기』상, 747쪽.

군의 영솔장(領率將)을 맡아 서남해안을 돌아 5월 전주성을 입성하기 전까지 선봉에서 지휘한 인물이다. 정일서는 고부 농민군 접주로 고부봉기 단계에서 중요한 인물이며, 손여옥은 1871년 정읍군 출신으로 손화중의 족질(族姪)이다. 사발통문에 서명하고 고부에서 기포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으며, 9월 재봉기 후에는 나주싸움에 참전했다가 체포된 것으로 확인되는 인물이다.[25] 기행현의 기록대로라면, 9월 16일 전봉준의 2차 봉기에 태인의 최경선, 고부의 정일서, 정읍의 손여옥이 군대를 일으켜 2차 봉기에 함께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부안읍의 동학농민군들은 9월 17일에는 읍내 도회에서 모두 해산하여 돌아갔고,[26] 다음 날인 18일 밤에는 삼원장(三元丈), 백인흠(白仁欽), 백계중(白癸中)이 도소봉(道所峯)에 올라 천제(天祭)를 지내려고 왔다. 또한 와촌(瓦村)과 공촌(公村) 두 접에 속한 도인들의 활동이 활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27] 부안 지역 동학농민군들은 9월 17일을 전후하여 재봉기를 위한 움직임이 있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해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와촌과 공촌의 두 접의 동학농민군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음도 알 수 있다.

9월 19일에는 도인들이 상서(上西) 장전평(長田坪)에서 모였으며,[28] 22일에는 동학교인들이 모두 읍전에 있는 옛 교련(敎鍊)하는 사습터[私習基]에 모였다고 하여 직접 가보니 그 모습이 장관이었다고 기록하였

25 이동초 편, 『동학천도교인명사전』, 동학천도교인명사전연구회, 2015.
26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국역 홍재일기』 상, 747쪽.
27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국역 홍재일기』 상, 747쪽.
28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국역 홍재일기』 상, 747쪽.

다.[29] 이후에도 꾸준히 부안 지역의 동학농민군들은 봉기를 위해 모여 활동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 시기 부안 지역민들이 바라보는 동학과 동학농민군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의 배경은 김낙철 가문과 천석꾼이면서도 동학에 입도한 김낙철, 김낙봉 형제의 성품에 기인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인식 때문에 이 시기 부안은 관과 유생, 그리고 동학의 관민상화(官民相和) 혹은 민중자치(民衆自治)가 가능하였다.[30]

3) 부안동학농민군에 대한 탄압

부안 지역의 동학농민군들의 활동은 2차 봉기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9월 25일 기행현이 김윤중의 집에 갔다가, 부안 인근의 7개 마을이 어제 서로 모여 이 마을에 금란소(禁亂所)를 설치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된다.[31] 또한 동학농민군을 탄압하기 위해 경병(京兵)과 일본군(日本軍)이 내려 온다는 소식에 민심이 더욱 동요된다는 기록도 확인된다.[32] 10월에는 동학농민군을 잡아들이기 위해 경군과 왜군이 물과 육지 양 방면으로 이르렀고,[33] 전라도 12개의 읍 수령이 병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음을 기록하였다.[34] 부안 지역을 포함한 인근의 동학농민군들에 대한 탄압이

---

29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국역 홍재일기』 상, 747쪽.

30 「김낙철 역사」,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5,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9, 178~179쪽.

31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국역 홍재일기』 상, 748쪽.

32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위 책, 748쪽.

33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위 책, 749쪽.

34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위 책, 749쪽.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10월 말부터 동학농민군들은 경병과 일본군과 맞설 수밖에 없었고, 지속적으로 패전 소식들이 전해졌다. 이러한 소식들이 『홍재일기』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10월 24일에는 접졸(接卒)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패하였고,[35] 10월 28일에는 전봉준(全琫準)의 군대가 패하였거나 혹은 모두 죽거나 흩어져 죽은 사람이 과반이었으며,[36] 11월 9일에는 접전(接戰)하였는데 전봉준이 또 크게 패하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으며,[37] 11월 28일에는 경군과 동학농민군이 태인에서 전투를 치르고 동학농민군이 패하여 도망하였다[38]고 하였다.

반면 동학농민군들의 승전보 소식도 확인된다. 11월 말 경군과 삼도(三道)의 병사들로 구성된 6만 8천의 병력이 김제 만경과 금구 원평으로 나뉘어서 전라감영으로 들어갔으나, 동학농민군에게 크게 패하는 일이 있었다.[39] 전라감영은 10월경 김개남이 근거지로 삼았던 곳으로 10월 28일경에는 전라감사 김학진(金鶴鎭)이 쫓겨났던 것으로 확인된다.[40] 이날의 패배로 남원부사 등이 사망하였고, 동학농민군에게 피해를 입은 관원들이 고을을 도륙하였을 뿐 아니라 고을의 이름까지 바꾸는 등의 복수까지 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고증이 필요하겠으나, 당시 동학농민군에 대한 탄압을 간접적으로 알 수

35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위 책, 751쪽.
36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앞 책, 751쪽.
37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앞 책, 753쪽.
38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앞 책, 755쪽.
39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앞 책, 754쪽.
40 『영상일기』, 10월 28일자.

있는 기록이다. 또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던 장군 중에는 동학농민군에 의해 죽임을 당한 가족의 복수를 위해 배정된 '복수장군(復讎將軍)'이 있었던 것도 확인된다. 동학농민군에 대한 탄압이 얼마나 심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 11월 말 전봉준과 김기범(金基凡)이 모두 패하여 달아나 원평(院坪)에 이르렀고, 경군(京軍)과 삼도(三道)의 병사를 아울러 6만 8천 명에 이르렀는데 전라감영으로 들어가며 한 갈래는 김제 만경(金堤萬頃)에 이르고, 한 갈래는 금구 원평(金溝院坪)에 이르러 동학군에게 크게 패하였다고 한다. 대장 신정희(申正希), 남원부사(南原府使) 이용헌(李用憲)이 동학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므로 그 동생 ■■이 **복수장군(復讎將軍)**으로서 병사를 이끌고 내려왔고, 대구중군(大邱中軍) 박항래(朴恒來)도 복수장군으로서 병사를 이끌고 내려왔다고 한다. 고부 신관(古阜新官) 양필환(梁弼煥)은 동학에게 해를 입었는데, 그 고을의 향리와 민간에서 그 시신을 거두지 않았으므로 그 고을을 도륙(屠戮)하고 그 고을의 이름을 혁파했다고 한다.[41]

경군 700여 명이 동학농민군을 탄압하기 위해 고부에서 나주로 내려갔는데, 이 시기 기행현은 관에서 발급한 유학표(儒學標)라는 것을 받아 집안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고 기록하였다. 아마도 이 유학표는 동학농민군과 비동학농민군을 구별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42] 그러나 『봉남일기』나 『영상일기』 어디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부안에서만 확인되는 특별한 징표인지 주목된다. 부안읍에는 11월에 신

41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앞 책, 754쪽.
42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앞 책, 755쪽.

임 관찰사[新伯]로 이도재(李道宰)가 부임하였는데, 이후 동학이 거의 사라졌다는 기록도 확인된다.[43]

일본군과 정부군의 동학농민군에 대한 탄압은 12월부터 더욱 거세졌다. 경군은 12월 6일 고부읍에 들어가 동학농민군을 체포하였고,[44] 부안의 백원장을 비롯하여 전명숙(全明叔), 정일서(鄭一西) 등 여러 접주(接主)들이 모두 체포되었고,[45] 김여중이 체포되어 고부로 압송되었다.[46] 또한 부안 동학농민혁명의 주도자인 백사준에 대한 체포 명령이 엄격하여, 백사준을 대신하여 외숙(外叔)을 잡아 가두는 일도 일어났다.[47] 탄압의 정도가 매우 극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2월 21일에는 하도(下道)의 동학농민군이 장흥의 수령을 살해하여 모조리 체포하였으며, 전봉준과 손화중을 잡아 나주에 가두었다고 한다.[48] 12월 29일에도 시장에서 동학농민군 2명이 체포되는 등 12월 말까지 동학농민군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이 이루어졌다.[49] 12월 말까지 부안에는 동학농민군을 탄압하기 위한 왜군과 경군이 거의 철수하였는데, 그중 일부는 남아 경계를 늦추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50]

이 시기 유생들이 동학농민군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도 보인다. 당시 예동 재실의 본명 유회(儒會)에 갔는

43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앞 책, 756쪽.
44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앞 책, 756쪽.
45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앞 책, 756쪽.
46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앞 책, 756쪽.
47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앞 책, 756쪽.
48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앞 책, 757쪽.
49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앞 책, 758쪽.
50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앞 책, 757쪽.

데 윤음(綸音), 감결(甘結)과 하첩(下帖)에 '비록 동학인이라고 하더라도 귀화한다면 곧 나의 양민(良民)이다.'라고 하였다고 한다.[51] 즉, 동학교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척이 아니라 동학교인이 귀화한다면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2월 30일에는 일인(日人)이 30여 명과 경군 100여 명이 성에 들어와 마을에 많은 폐단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유회장(儒會長) 이하 향유(鄕儒) 수십 명이 경군대관소(京軍隊官所)에 등장(等狀)을 올려 호소하는 일도 있었다. 이에 대해 대관이 백배 사과하며 금단하겠다고 하였음을 기록하였다.[52] 이 시기 유생들은 나라를 어지럽히는 동학농민군을 체포하려는 경군에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성에 들어와 마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군을 질타하여 사과를 받아냈다.

동학농민군에 대한 탄압은 이듬해인 1895년에도 지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특히 동학농민군 체포에 향교의 유생이 앞장섰던 것이 확인된다. 향교에 설치된 유회소(儒會所)에 모여 향사대회(鄕士大會)를 열어 '동학 거괴(東學巨魁) 7인'-백사준, 김도삼(金道三), 이상용(李相用), 손수일(孫守一), 김석윤(金石允), 곽덕언(郭德彦), 신명언(辛明彦)을 체포하기 위해 향중유생(鄕中儒生) 30인을 별유사(別有司)로 차정하고 거괴와 구동학(舊東學)을 체포하기로 모의하였다.[53] 그리고 별유사에 차정된 송윤두(宋潤斗), 김규용(金奎鏞), 김진용(金鎭庸)이 기행현의 마을에 사는 구동

51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앞 책, 757쪽.

52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앞 책, 757쪽.

53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국역 홍재일기』 하, 17쪽; 이선아, 「19세기 부안 유생 기행현의 『홍재일기』와 동학농민혁명의 실상」, 『동학학보』 50, 동학학회, 2019, 108쪽.

학(舊東學) 박문표를 체포하였으며, 도산(道山)에 사는 김태보(金奉甫)와 이화일(李化一)을 체포하였다.[54]

동학농민군의 체포와 관련된 기록은 1895년 5월까지 확인된다. 1월 5일 곽덕언(郭德彦)과 송성구(宋成九)가 체포되었고,[55] 신소룡(申小龍)이 고창에서 체포되었으며 김도삼도 체포되었다.[56] 1월 12일에는 별유사가 체포한 박문표, 김태보, 송성구가 남문 밖에서 총살되었다.[57] 2월에 들어서는 무장(茂長)의 전 장령(掌令) 김수형(金秀馨)이 부안군 남하면의 향교에 통문(通文)을 하여, '동학 가운데 구동학도[旧道]이든 신동학도[新道]이든지 소란을 일으키는 자는 뿌리를 뽑아 후환을 막는데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58] 또한 별유사(別有司) 친구 김군오(金君五), 채기삼(蔡奇三)이 수성군 1명과 함께 도착하여 강일봉(姜日鳳)을 붙잡았는데 나이가 어려서 가엽게 여겨 도로 풀어 주는 일도 기록되어 있다.[59] 비록 『홍재일기』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월 22일에는 김여중과 김명중, 모치옥, 임행춘 등 9명이 체포되기도 했다.[60] 이즈음 동학농민군이 고산의 산중에 모여 진을 치고 있어 감영에서 이들을 공격하여 20명을 죽이고 18명을 생포하였다는 기록도 있다.[61] 이 산중에 모인 동학

54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위 책, 18쪽.
55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위 책, 17쪽.
56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위 책, 18쪽.
57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앞 책, 18쪽.
58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앞 책, 20쪽.
59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앞 책, 20쪽.
60 二十二日行陳于扶安邑捉得巨魁金汝中金明中牟致玉林行春孫順西孫陽叔金仁權裵洪烈李基範九漢;『양호우선봉일기』 4, 1895년 1월.
61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앞 책, 21쪽.

농민군은 시기적으로 판단할 때, 대둔산에서 관군과 동학농민군이 벌인 최후의 항쟁을 전해 들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2월 부안읍의 동학농민군 9명이 남문 밖과[62] 동학농민군 7명이 시장에서 총살되었다.[63] 26일을 즈음해서는 동학농민군을 매우 심하게 체포하고 있다는 기록도 보인다.[64] 이 시기 관에서는 고을 백성들에게 전령을 내렸다. '우리 고을의 동학 거괴 백사중(白士仲), 손수일(孫秀一), 이상용(李尙用), 신명언(辛明彦), 신공선(辛公先) 다섯 놈을 체포하지 않을 수 없으니 백성들은 경동(驚動)하지 말고 농업과 상업에 편안히 임하라.'라는 내용이었는데, 관의 동학 접주들에 대한 탄압 의지가 강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65] 3월에는 김석윤(金石允)이 총살되었고, 전봉준과 손화중 등 6명이 27일에 교수형에 처해졌다는 소식은 4월에 들었다.[66] 4월 22일에는 부안읍의 거괴인 김여중(金汝中)이 나주에서 상경하여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에 장차(將差) 노대규를 보냈으며, 팔문(八文)을 때려 죽인 이규노(李奎魯)와 이성오(李成五)가 체포되었다는 기록이 확인된다.[67] 동학농민혁명이 끝나는 다음 해 5월까지 동학농민군에 대한 탄압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62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앞 책, 22쪽.
63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앞 책, 23쪽.
64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앞 책, 23쪽.
65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앞 책, 25~26쪽.
66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앞 책, 28쪽.
67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앞 책, 32쪽.

3. 맺음말

전라도 유생들은 동학을 서학의 변종이나 혹세무민의 학문으로 인식하였고, 교조신원운동으로 교세가 성장하면서 적극적으로 배척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동학농민혁명 1차 봉기 시기에 농민군이 감영군과 경군을 연이어 격파하였을 뿐 아니라 조선왕조의 발상지이면서 호남의 수부인 전주성까지 점령하면서, 유교 지식인들의 위기의식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유생들이 직접 농민군들과 맞서 싸우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기행현 역시 동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조선에 대한 노골적인 야욕을 드러냈고, 9월 18일 최시형이 내린 총기포령에 따라 남접과 북접의 동학농민군이 연합하여 활동한 시기로 중요하다. 『홍재일기』에서도 이 시기 부안읍의 도소를 읍내의 작청(作廳)에 설치하는 등 봉기한 점이 확인된다. 기행현이 살던 부안 지역의 동학농민군은 1차 봉기 때는 거리를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나, 총기포령에 따른 2차 봉기에는 동참하였다. 이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키려는 뜻이 있다고 파악하였고, 이러한 일본군을 물리치기 위해 거병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전라도 일대 동학 접주들이 동참하였는데, 그중 부안에서는 김석윤과 김여중, 최경선을 비롯하여 송희옥 등이 참여했다.

총기포령 이후 부안과 인근 지역 동학농민군들의 움직임은 『홍재일기』에서 다양하게 확인된다. 9월 16일 전봉준의 2차 봉기에 태인의 최경선, 고부의 정일서, 정읍의 손여옥이 군대를 일으켜 2차 봉기에 함께 참여하

였다. 당시 부안읍의 동학농민군들은 와촌과 공촌의 두 접의 동학농민군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부안 지역의 동학농민군들의 활동에 맞서 부안 인근의 7개 마을이 서로 모여 금란소(禁亂所)를 설치하였으며, 동학농민군을 탄압하기 위해 경병(京兵)과 일본군이 내려왔다. 그리고 10월 말부터는 동학농민군들이 경병과 일본군과 맞서 지속적으로 패전한 소식들이 전해졌다. 이러한 소식들이『홍재일기』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반면 동학농민군들의 승전보 소식도 확인된다. 11월 말 전라감영에서 크게 승리하였으나, 관원들이 고을을 도륙하였을 뿐 아니라 고을의 이름까지 바꾸는 등의 복수까지 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던 장군 중에는 동학농민군에 의해 죽임을 당한 가족의 복수를 위해 배정된 '복수장군(復讎將軍)'이 있었던 것도 확인된다. 동학농민군에 대한 탄압이 얼마나 심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일본군과 정부군의 동학농민군에 대한 탄압은 12월부터 더욱 거세졌다. 경군은 인근 지역의 접주들을 모두 체포하였을 뿐 아니라, 12월 말까지 농민군을 지속적으로 체포하였다. 12월 말에는 부안의 동학농민군을 탄압하긴 왜군과 경군이 거의 철수하였으나, 일부가 남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이 시기 지역의 유생들은 동학교인에 대해 무조건적인 배척이 아니라 동학교인이 유생으로 귀화한다면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또한 나라를 어지럽히는 동학농민군을 체포하려는 경군이 마을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를 들어 질타하는 모습 등을 통해 경군에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동학농민군에 대한 탄압은 이듬해인 1895년 5월까지 지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많은 동학농민군들이 체포되었고, 인근에서 경군에 의해 총살되거나 교수형에 처했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다. 특히 동학농민군 체포에 향교의 유생이 앞장섰

다는 기록도 확인되어 눈길을 끈다.

이상으로『홍재일기』를 통해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과정에서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홍재일기』를 쓴 기행현이라는 인물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지 않은 지방의 유생이었기 때문에,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되지 않고 목격하고 들은 내용이 기록되어 지방 유생들의 인식과 시대 상황들을 살펴보는 데 유용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들이 주목하지 않은 1894년부터 1895년까지의 부안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양상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살펴보았다는 점은 의미를 갖는다.

투고일 : 2023. 10. 20.　　심사일 : 2023. 11. 14.　　게재확정일 : 2023. 11. 16.

참고문헌

· 「김낙봉 이력」,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5,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9.
· 박맹수, 「전라도 유교 지식인의 동학농민군 인식과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제51집, 2009.
· 이동초편, 『동학천도교인명사전』, 동학천도교인명사전연구회, 2015.
· 이선아, 「19세기 부안 유생 기행현의 『홍재일기』와 동학농민혁명의 실상」, 『동학학보』 50, 동학학회, 2019.
· 조성운, 「부안 지역의 동학농민운동과 백산대회」, 『역사와 실학』 61, 역사실학회, 2016.

국문초록

홍재일기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기 부안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성격

정을경(충남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전라도 유생들은 동학을 서학의 변종이나 혹세무민의 학문으로 인식하였고, 이후 동학농민혁명 1차 봉기 시기에 농민군이 감영군과 경군을 비롯하여 호남의 수부인 전주성까지 점령하면서 더욱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다. 기행현 역시 동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9월 18일 최시형이 내린 총기포령에 따라 남접과 북접의 동학농민군이 연합하여 활동한 시기이다. 『홍재일기』에서도 이 시기 부안읍의 도소를 읍내의 작청(作廳)에 설치하는 등 봉기한 점이 확인된다. 기행현이 살던 부안지역의 동학농민군은 1차 봉기 때는 거리를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나, 총기포령에 따른 2차 봉기에는 일본군을 물리치기 위해 거병했다고 밝히면서 동참하였다. 봉기에는 부안의 김석윤, 김여중, 최경선, 송희옥 등을 비롯하여 전라도 일대 동학 접주들이 참여하였다.

이 시기 부안과 인근 지역 동학농민군들의 움직임은 『홍재일기』에서 다양하게 확인된다. 태인의 최경선, 고부의 정일서, 정읍의 손여옥이 군대를 일으켰고, 부안읍의 동학농민군들은 와촌과 공촌의 두 접의 동학농민군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이들의 활동에 맞서 부안 인근의 7개 마을이 서로 모여 금란소(禁亂所)를 설치하였으며, 동학농민군을 탄압하기 위해 경병(京兵)과 일본군(日本軍)이 내려왔다. 그리고 10월 말부터는 동학농민군들이 경병과 일본군과 맞서 패전하고 승전하는 소식들이 『홍재일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11월 말 전라감영에서 크게 승리하였으나, 관원들이 고을을 도륙하였을 뿐 아니라 고을의 이름까지

바꾸는 등의 복수까지 했다. 또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던 장군 중에는 동학농민군에 의해 죽임을 당한 가족의 복수를 위해 배정된 '복수장군(復讎將軍)'이 있었던 것도 확인된다.

일본군과 정부군의 동학농민군에 대한 탄압은 12월부터 더욱 거세졌다. 경군은 인근 지역의 접주들을 모두 체포하였을 뿐 아니라, 12월 말까지 농민군을 지속적으로 체포하였다. 12월 말에는 부안의 동학농민군을 탄압하던 일본군과 경군이 거의 철수하였으나, 일부가 남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이 시기 지역의 유생들은 동학교인에 대해 무조건적인 배척이 아니라 동학교인이 귀화한다면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또한 나라를 어지럽히는 동학농민군을 체포하려는 경군이 마을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를 들어 질타하는 모습 등을 통해 경군에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동학농민군에 대한 탄압은 이듬해인 1895년 5월까지 지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특히 동학농민군 체포에 향교의 유생이 앞장섰다는 기록도 확인되어 눈길을 끈다.

주제어 : 홍재일기, 금란소, 기행현, 2차봉기

Abstract

Activities and Characteristics of Donghak Peasant Army in Buan during the Second Uprising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rough Hongjae Diary

Jeong, Eul-Kyung(Chungnam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 senior researcher)

The Confucian scholars of Jeolla-do recognized Donghak as a variant of Seohak or a study of tax people, and later, during the first uprising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e peasant army occupied Gamyeong-gun and Gyeong-gun as well as Jeonju-seong, the head of Honam. It is confirmed that Ki Haeng-hyun also had a negative perception of Donghak.

The second uprising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was a time when the Donghak Peasant Army in the South and the North were united in accordance with the gun decree issued by Choi Si-hyung on September 18. In "Hongjae Ilgi", it is also confirmed that during this period, Doso in Buan-eup was established in Jakcheong in the town. The Donghak Peasant Army in Buan, where Ki Haeng-hyun lived, did not actively participate from a distance during the first uprising, but participated in the second uprising following the gun decree, saying it was a large soldier to defeat the Japanese army. Kim Seok-yoon, Kim Yeo-jung, Choi Gyeong-seon, Song Hee-ok, and other Donghak masters from Jeolla-do participated in the uprising.

During this period, the movements of Donghak Peasant Army in Buan

and nearby areas are variously confirmed in "Hongjae Ilgi". Choi Gyeong-seon of Taein, Jeong Il-seo of Gobu, and Son Yeo-ok of Jeongeup raised the army, and Donghak Peasant Army of Buan-eup was actively engaged in two Donghak Peasant Army of Wachon and Gongchon. In response to their activities, seven villages near Buan gathered with each other to set up a Geumlan site, and Joseon Government Army and Japanese soldiers came down to suppress the Donghak Peasant Army. And from the end of October, the news of Donghak Peasant Army's defeat and victory against the police and Japanese troops is recorded in the "Hongjae Ilgi". They won greatly in Jeolla Gamyeong at the end of November, but officials not only stole the village but also took revenge by changing the name of the village. It is also confirmed that among the generals who suppressed the Donghak Peasant Army was a "revenge general" assigned to avenge the family killed by the Donghak Peasant Army.

The Japanese soldiers and Joseon Government Army's oppression of Donghak Peasant Army has intensified since December. Joseon Government Army not only arrested all the neighboring residents of the nearby area, but also continuously arrested the peasant army until the end of December. At the end of December, the Japanese and light forces that suppressed the Donghak Peasant Army in Buan almost withdrew, but some remained and remained vigilant. During this period, Confucian scholars in the region were not unconditionally ostracized, but were willing to accept Donghak if they were naturalized. It is also confirmed that the Joseon Government Army, who tried to arrest the Donghak Peasant Army that disturbed the country, was not in favor of the police force by criticizing them for disturbing the order of the village. The suppression of the

Donghak Peasant Army was continuously recorded until May 1895, the following year. In particular, it is noteworthy that records have been confirmed that Hyanggyo's Confucian scholars took the lead in the arrest of Donghak Peasant Army.

key word : Hongjae Ilgi, Geumlan site, Kihanghyun, the second uprising